

10월의 대축전장에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서자

심장은 쫓는다, 당의 부름에

10월의 대축전장에 나는 어떤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설 것인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심장에 안고 사는 물음이다.

이 물음앞에 땀땀하기 위해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서도 완강하게 똘고나서며 피하는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물음에는 단원마그네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땀땀 나사!)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 바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올레신선사를 받아안고 일군들로부터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일본새가 달라졌다.

이들은 그 어떤 난관이 막아나서도 불가능을 모르고 맞받아 공격해나가는 투쟁분대를 파시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달려가고있다.

올해초에 긴장한 전격조건으로 생산계획을 수행한다는 못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군들이 일제히 한계 단위씩

단원마그네사 공장 에서

말고 현장에 내려가 노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였다고 평정별로적생산조직을 비롯한 실무직인 대책들도 따라세웠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중단없이 밀고나가기 한다는 생산자들의 의지와 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특히 원로직장 로동계급이 긴장한 전격조건에서도 설비들의 가동을 원만한 보장할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였다.

광석전복기작업반 로동자들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완전전복기가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운용을 용이하고 소성공정들의 승격을 더욱 높여왔다. 직장의 그 누구나 적은 전력으로 생산을 높이기 위해 피라게 사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들속에서 사별체의 무동력화가 약속되었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원로직장에서 난관을 맞받아 똘고나가기 혁신할 때 8월23일직장에서 크링카생산의 승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326작업반의 로동자들이 교대당 생산량을 높여가며 기세 좋게 전진하던 어느날이었다. 뜻밖에 로에 장입물이 부족되어

이 들어서는 하나의 마음이였다. 이런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심장속에 자리잡혔고있었다. 이들을 중진같이 만주일이 걸려야 한다면 보수작업을 단 하루동안에 진행하고 생산의 동용을 우려했을 줄을 알았을 것이다.

당의 부름앞에 자기의 한몸을 내는 이런 헌신적인 투쟁정신은 매월 말까지 경소마그네사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가스조직장 로동계급에서도 발휘되고있다.

이것 직장 로동계급은 올해에 어려운 생산조건에서도 경소마그네사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는 기발한 장안을 많이 하였다.

광석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때 직장로동계급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미광을 첨가하여 생산을 내밀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내었다. 배합비율만 잘 지키면 마그네사용량을 떨어지지 않고도 생산을 용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도입한 결과 환교대에서 500kg의 미광을 수용한다고 볼 때 매일, 매달 절약되는 광석량은 대단한 것이었다. 광석연소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어 연료도 절약되었다.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추진

경소마그네사생산에 미광을 리용하기 위한 사업은 공장적인 사업으로도 활기있게 전직되고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바다가 주변에 산처럼 쌓여있는 미광을 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부유성기사를 일깨우고 조업준비비다스라고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은 큰 경제적리를 얻게 되며 경소마그네사생산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된다.

지금 가스조직장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절약정신은 더욱 높아졌다. 절약이라는 낱말을 통해 절감한 이들을 소성반을 리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설계준비를 끝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땀땀이 들어서려는 불같은 마음은 이렇듯 불가능을 모르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는 총공격조직의 지도에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한 로력적선물과 내음을 부질형내화물생산공정건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순간도 주저하지나 멈춤이 없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온 이들의 투쟁의 자욱자욱은 우리의 뜨겁게 새겨안는다.

본사기자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산과 건설에서 젊은이들 위하여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비와 생산공정, 제품포장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따그쳐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식료품공정설비와 평양시로통합기업소, 과학, 교육기관 일군들과 과학자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건물개조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각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애 생산공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당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비중을 높이면서 설비현대화를 우리의 기술, 자재에 토대하여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생산공정의 무곤화, 무전화실현을 비롯하여 현대화의 큰 몫을 맡아 해왔다.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풍유유생공정을 맡은 김혁공정종합대학에서는 그전에 있던 낡은 설비들을 완전히 새로내고 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였으며 유유공정기공로로 부평단대로 보드, 유유공정기공로로 만들어 제품의 질제고는 물론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화를 실현하였다.

현대수령양공정용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공신적생산공정에 설계직을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았을뿐아니라 모든것을 우리의 것으로 현대화하였다.

생산공정의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공씨이로제건을 맡은 국가과학원에서는 그전에 비해 싸이로능력을 배로 확장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치는 돌부러, 껍질분리, 건조공정 등을 완전히 현대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로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영양사, 애기갯가루, 애기갯가루를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국산화하면서도 현대적인 설비들로 무너놓아 든든 단계에 걸치는 마련하였으며 통합생산자회체제와 품질관리체제확립을 다그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후대사망의 뜻을 높이 받들고 어린이식료품생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쫓겠다는 야심을 안고 달려올 수 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그리고 현안단위의 과학자, 교육자,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윤 금 찬



당장전 일흔들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도록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상 농 광 산 에서 - 본사기자 리 진 명 적음

년간계획을 끝낸 공지와 자랑을 안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적업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정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살머 투쟁하여야 합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한 로력적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서서 끝나는 일군들의 투쟁 열정을 널리 힘찬 투쟁을 벌려온 힘찬 투쟁의 열정을 축하하며, 인민군정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로동자들도 내부에비를 최대한 탐구되었고 많은 작업방법을 직접 받아들이고 알은 밤나루를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특히 동진공정생산사업소에서 물품보수와 물리검정, 타르레깅산 등 류별준비를 착실히 하여 물품조각은 양의 통나무를 운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장도립업관리국에 갑산림산사업소와 백암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산지통나무생산을 앞세우는데와 함께 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잘하여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이들은 공무기지를 든든히 꾸려놓고 헌만한 부속들은 차례로 생

산하는 한편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대한 수리를 기술적으로 진행하여 그 리용을 부럽게 하였다.

림산사업소와 갑산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추종적으로 마련하면서 증진투쟁을 힘있게 벌려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열매를 맺었다.

지금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힘찬 투쟁의 각자 립산, 경목생산사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오직 10월의 대축전장에 땀땀이 들어서서 끝나는 열매를 맺고있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전 천세멘트 공장 에서

전천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9월 17일까지 공장앞에 걸쳐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05%로 수행하는 자랑한 로력적성으로 기뻐하였다.

계획수행기간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올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멘트생산에 모범이 되는 혁신을 일군데서도 화신적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 일군은 당장전 일흔들을 안고 대이와라로 발전한 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년초부터 세멘트생산조직과 지휘를 전무적으로 짜고 들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수시점의 압

수출, 착안기부속품과 자재들을 광산사업소에 보내주어 세멘트 생산의 선형공정을 지켜신 광산사업소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작업기의 로동자들은 압축기, 착안기의 리용율을 높이면서 4월말까지 올해 세멘트생산에 요구되는 수인의 사회적성을 확보하는 자랑한 로력적 혁신을 일으켰다.

공장의 일군들은 광산과 판광이 멀리 떨어져있는 조건에 맞게 배차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 대이와라로 발전한 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년초부터 세멘트생산조직과 지휘를 전무적으로 짜고 들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수시점의 압

합격기준은 당과 인민의 요구

강동지구관 광관 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금, 로력문제이었는데, 광대 일군들은 해방전후 혁명난 광을 찾았으며 주인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되새겨보았다. 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열열한 뜻을 밝혔다.

그러하여 혁명관광지구에 백수십 세대들의 반부살림집이 일떠섰었고 명당관광에서는 구애에 없었던 넓은 살림집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담한 반부살림집이 생겨났으며 당장전 일흔들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강동관광 시구지역에 반부살림집건설을 완료하였는것이이다.

관광마을을 형성함에 있어서 일군들은 구애의 중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더 밝고 환하게 모시기 위한 사업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계속하고 옹호고수하기 위한 교양지점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두도록 하는 사업을 첫머리에 놓고 진행하였다.

이런 마음을 고이 안고 반부살림집건설사업을 대담하고 용이하게 밀어붙여가는 이곳 일군들에게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도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지금까지만 하여도 강동관광의 시구지역은 크고작은 온과 밭살사이에 군데군데 넓혀져있는 일동다세대 단층살림집들로 한개 반부살림집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살림집들을 통해로 힘어 버린 다음 다종아빠들이 늘어선

여러 립산, 경목생산사업소들에서

뜻깊은 올해 년초부터 산관마다에서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온 힘찬 투쟁의 열정을 축하하며, 인민군정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즉시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 날에 날마다 새로운 목표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승리하는 공지와 오직 10월의 대축전장에 땀땀이 들어서자!

화신적정지사업이 산관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통나무생산투쟁이 펼쳐나선 각자 립산, 경목생산사업소로동계급의 전 투열의는 더욱 고조되었다.

평안남도립업관리국에 대용, 덕천, 신양, 덕천, 평화경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자체설정에 맞게 수송전투를 짜고 들고 문건기계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여 통나무생산계획을 매달 넘쳐 수행하였다.

자장도립업관리국에 자성림산사업소, 동진, 강계, 최현경목생산사업소와 강동도립업관리국에 관교, 안림림산사업소, 통천경목생산사업소의

합격기준은 당과 인민의 요구

강동지구관 광관 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마음을 형성하고 마을한복판에는 공원과 휴식터를 덧붙여지기로 더 더우기 세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천수백㎡의 새마을이 생겨나게 되는 공사의 설계를 누구나 밟고서 걸쳐나도나와나이다.

석탄생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좌하면서 도 변화기업소의 모든 단 광들에 새로운 반부마을을 하루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려는 변화기업소의 요구는 목표는 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오늘은 이 한광에서, 매일은 저 한광에서 반부들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그토록 훌륭하게 마련된다는 궁지와 행복감에 넘쳐는 반부마을, 온 반부기업소로 반부살림집건설로 번부 끝났다.

변화기업소일군들과 반부들의 드높은 열의 밑에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록 건축물의 질에 대한 책임일군들의 요구성은 일찍했다.

중요대상건설장에서 공사시공을 많이 주관하는 일군들도 수순을 들 만큼 책임일군들의 합적기준에 도달하기만큼 철저한 열의 없었다.

총계의 높이는 알맞춤한가, 반부들이 집을 들어설 때 안전한가를 주도록 벽면을 환하게 하였는가, 불이 잘 들었는가, 접속구들은 자기위에서 놓여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서 미세하게나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즉시에 재시공하도록 하였다.

반부들이 리용상 사소한 불편이

건구와 가구, 제재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

라선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과 인민의 부름앞에 바로 써 대담할것이 아니라 자기 안목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라선시회 부근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격동적인 소시에 걸친 라선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건축과 가구, 제재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고있다.

건구와 가구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라선가구공업이 생산성과 부쩍 높여나갔다.

공공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살림집건설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건구와 가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화신정, 화신정신을 집중적으로 높여나갔다.

김용길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기술혁명의 불꽃을 자주 조직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생산회색을 전무적으로 진행하여 그날그날의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며 사퇴의 만세, 로동당만세를 소리높이 외치게 되었다.

그렇다. 오늘날 혁명의 지휘정신들의 합격기준은 오직 하나 당과 인민의 요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이미 수백세대들의 문물을 완성하고 800여개의 벽장기구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많은 기술자들은 벽장기구설계를 하루동안에 완성하고 소재가 밟은 작업반에서는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각종 규격의 소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조립을 맡은 작업반들은 높은 정신력과 기술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루 200여개의 벽장기구를 조립하는 기록을 세웠다. 연말과 도색을 맡은 작업반에서는 당의 인민사망이 가정 불행이라 하여 인민들에게 구하될 마음을 떠나하나하나의 가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였다.

공공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벽장기구와 가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화신정, 화신정신을 집중적으로 높여나갔다.

김용길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기술혁명의 불꽃을 자주 조직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생산회색을 전무적으로 진행하여 그날그날의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며 사퇴의 만세, 로동당만세를 소리높이 외치게 되었다.

그렇다. 오늘날 혁명의 지휘정신들의 합격기준은 오직 하나 당과 인민의 요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통천군 양서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 농업근로자들이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한 로력적선물을 안고 땀땀이 들어서서 끝나는 마음을 안고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가을걷이전투에 적극 열쳐나서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가전에 선동원들이 선동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일군들이 작업반들에 내려가 잘 이끌어주게 하였다.

일군들의 관심속에 농장의 모든 선동원들은 해설담화, 노래를 통한 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

동행식물을 정황에 맞게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으며 포진방축기계들도 잘 준비해놓을수 있었다.

제1, 2, 3 작업반의 선동원들은 짧은 시간에 가을걷이를 결속하는데서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가을걷이전투에 들어간 첫 날부터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선동원들은 작업시작전과 철참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두가 분발하여 자랑한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선동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들의 활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모범적인 선동원들의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여 모든 선동원들이 승복성을 가지고 포진마다에서 경제신들의 복소리를 더욱 높여나간도록 하였다.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과정에서 농업근로자들은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할 총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가을걷이전투에서 남다른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로동통신원 박 금 옥

합격기준은 당과 인민의 요구

강동지구관 광관 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강동지구관 광관 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마음을 형성하고 마을한복판에는 공원과 휴식터를 덧붙여지기로 더 더우기 세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천수백㎡의 새마을이 생겨나게 되는 공사의 설계를 누구나 밟고서 걸쳐나도나와나이다.

석탄생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좌하면서 도 변화기업소의 모든 단 광들에 새로운 반부마을을 하루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려는 변화기업소의 요구는 목표는 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오늘은 이 한광에서, 매일은 저 한광에서 반부들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그토록 훌륭하게 마련된다는 궁지와 행복감에 넘쳐는 반부마을, 온 반부기업소로 반부살림집건설로 번부 끝났다.

변화기업소일군들과 반부들의 드높은 열의 밑에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록 건축물의 질에 대한 책임일군들의 요구성은 일찍했다.

중요대상건설장에서 공사시공을 많이 주관하는 일군들도 수순을 들 만큼 책임일군들의 합적기준에 도달하기만큼 철저한 열의 없었다.

총계의 높이는 알맞춤한가, 반부들이 집을 들어설 때 안전한가를 주도록 벽면을 환하게 하였는가, 불이 잘 들었는가, 접속구들은 자기위에서 놓여있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서 미세하게나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즉시에 재시공하도록 하였다.

반부들이 리용상 사소한 불편이

이런 마음을 고이 안고 반부살림집건설사업을 대담하고 용이하게 밀어붙여가는 이곳 일군들에게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도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지금까지만 하여도 강동관광의 시구지역은 크고작은 온과 밭살사이에 군데군데 넓혀져있는 일동다세대 단층살림집들로 한개 반부살림집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살림집들을 통해로 힘어 버린 다음 다종아빠들이 늘어선

이런 마음을 고이 안고 반부살림집건설사업을 대담하고 용이하게 밀어붙여가는 이곳 일군들에게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도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지금까지만 하여도 강동관광의 시구지역은 크고작은 온과 밭살사이에 군데군데 넓혀져있는 일동다세대 단층살림집들로 한개 반부살림집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살림집들을 통해로 힘어 버린 다음 다종아빠들이 늘어선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라오른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서해의 흥건도간석지건설장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새차개 풀이던지고있다. 2012년 7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3년동안에 서해의 배를 닦고 대량공사를 비롯한 여러개의 삽을 펼치는 간석지제방들이 날마다 날 내밀어 수천정보의 새땅을 얻게 될

그날이 눈앞에 왔다. 나머지구간은 이제 200여m, 좁은 골목으로 물이 쪼면 아무리 드러나보이는 넓은 흥건도간 석지가 볼수우 장관이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간석지건설자들은 대개도간석지를 완공하고 돌아와야만 친수백정보나 되는 확산 간석지 2계단공사를 붙이 땀 뻘 내게 해

제간 기세를 늦추지 않고 또다시 흥건도간석지건설을 시작하여 1호, 2호, 4호제방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당상근 일흔들전으로! 지금 연합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은 안산지구와 석화지구에서 날마다 가로막는 최후돌격전을 벌이며 3호제

방 1차물막이공사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우리는 횡포한 날바다를 내밀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미더운 간석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의 일단을 여기에 전한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본사기자 김승표

주도세밀한 작전과 파감한 실천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선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들을 혁명적대승으로 빛내여야 하겠읍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흥건도간석지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거어 이 당창건 일흔돌전으로 끝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에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하여 산 일군이 일떠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이다. 지난해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보장과 물적기재들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올해 말까지 3호제방의 나머지 3000여m 성토공사를 내밀어 1차물막이를 끝낼것으로 계획하고있었다.

제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연유와 부속품, 다리아를 보장해주는것이 급선무로 나섰다. 그뿐이 아니었다. 배수문제에 필요한 수천의 세멘트와 수백의 강재 외에도 육중한 여러개의 배수문과 전양기를 제작하여야 하였다. 마감막이에 쓸 쇠그물들자루배수구에 요구되는 철근만도 수십, 당장 여러척의 자동부림배를 수리정비해야 할 과제까지 제기되었다. 지배인 최영덕, 기사장 서원길동무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조성을 결심하면 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창건 일흔돌전으로 3호제방 1차물막이를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3호제방에 수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리용할 부두 2개를 건설하고 자동부림배들을 요과있게 리용하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하여 심하게 펴여나가는 마감막이구간바닥을 보강하기 위한 콘크리트배수구공법과 쇠그물들자루배수구공법을 받아들였다. 신박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불려한 해상조건에서도 여러척의 자동부림배들을 리용하여 마감막이구간에 대한 바닥배수구공법을 추진하는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물목이 졸아지는데 맞게 밀물목의 압력을 낮출수 있게 두개의 배수문공사를 빨리 다그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말바다를 내밀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미더운 간석지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의 일단을 여기에 전한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본사기자 김승표

지배인 최영덕, 기사장 서원길동무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조성을 결심하면 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창건 일흔돌전으로 3호제방 1차물막이를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가 일군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힘써 띠어주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안산 지구와 석화지구의 전투현장에 몸을 잡고 3호제방 1차물막이를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할 대단한 작전을 폈다. 그 리저런 막돌과 흙을 확보하는것이 선차적인 중요로 나섰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석화지구와 안산지구에서 막돌과 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대발과를 진행한데 이어 수백대의 중, 소 삽과를 하면서 3호제방성토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었다.

유치 지난 9월 21일 안산 지구의 대량공사에서 40만산 대발과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에 당창건 일흔돌전으로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특히 당위원회에서는 간석지건설자들에게 당창건 일흔돌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현장방문선전을 강화하고 경쟁적소행성을 제때에 강화하여 모두가 오늘의 보람찬 전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진하고있다. 3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끝낸 자랑스런 로력적성품을 안고 10월의 대승전전에 몇몇이 해머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대지가 넓어질 환희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가장먼저를 두고 혁신자들의 혁신자들도 이기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들도 남편들과 함께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전투원들이라는 자각을 안고 해마다 부업농사를 갈하여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있다. 흥건도간석지건설장 그 어디를 가나 혁신자들이 많이 건설지건설에서는 그렇듯 놀라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후방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후방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안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입니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자! 바로 이것이 종업원들에 대한 헌신적부담심을 체질화하고 있는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다. 현장합숙들을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에 꼭 훌륭한 생활조건과 충분한 식량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애쓰고있는 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간석지건설자들을 위훈창조으로 띠어주고있다.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 착공의 첫삽을 박던 때 일부 일군들은 한계 대량공사에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간석지건설의 실정에 맞게 건설장령시진물을 짓고 생활하면 되는 것만큼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당위원회일군들은 생각을 달리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후방사업에 전적으로 맡아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후방사업에 전적으로 맡아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후방사업에 전적으로 맡아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애구상하시던 실천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애국의 마음 하나 되여

은을 내는 빨찌산식병기창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려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간석지건설은 제방성토공사의 수리기제하는 물리적기재들의 수리기제하는 물리적기재들을 위한 수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잃을수 있었다. 만일 안산, 석화지구 수리기제를 꾸린다면 먼곳에 가지 않아도 대형수리기와 굴착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고 막돌과 흙은반에서 보다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다. 특히 현장수리기술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기술을 부단히 혁신하며 물리적기재들의 수리기제를 줄이기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지금 현장수리기제들에서는

물리적기재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가공하여 물리적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만부하를 절제 하고있다. 특히, 경정계화사업소의 운전수들이 안산 간석지건설소들의 물리적기재들에 대한 수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잃을수 있었다. 만일 안산, 석화지구 수리기제를 꾸린다면 먼곳에 가지 않아도 대형수리기와 굴착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고 막돌과 흙은반에서 보다 혁신을 일으킬수 있었다. 특히 현장수리기술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을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기술을 부단히 혁신하며 물리적기재들의 수리기제를 줄이기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지금 현장수리기제들에서는

립체전으로 공사의 돌파구를

척화간석지건설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



흥건도간석지건설장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라오른다

반통일원흥의 마수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남의 잔치상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며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제멋대로 끼어들어 훼방을 놓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고약한 악습이다.

북과 남, 해외에서 거세의 통일지향의 간섭행동은 자주적연방제국을 위한 우리 민족의 권리를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매개 민족에게는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당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진국적법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조국통일은 철저히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누구도 우리의 통일문제를 제멋대로 개입하여 이베라 저해라 간섭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미국의 대조선침략행동에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70년이 지나도록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의 환근인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손을 뗄 대신 뻔뻔스럽게도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간섭하며 그 해결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품고있다. 미국의 침략행동에 이같이 난자들의 남강도적적인 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 의해 세기들이 이어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는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허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세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세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하며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간섭의 마수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미국이 반통일행동은 북과 남의 화

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지난 북남대결의 역사는 북과 남을 리간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해온 미국의 반통일적인 죄악의 역사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자마자 실수끝은 속내를 포물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열기가 차넘칠 때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사측하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린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 오늘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런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가 펼쳐지자 그것을 배아파하며 방해해 나섰던 다음날인 미국이다.

10.4 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친미보수정권의 조작으로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미친 짓을 벌였다.

그대일이 풀릴가 하면 다시금 꼬이는 북남관계의 배후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모처럼 개선의 기회를 맞이한 지금 북남관계가 또다시 시련을 겪고있는 것은 미국의 악랄한 반통일책동과 때

때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자마자 실수끝은 속내를 포물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열기가 차넘칠 때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사측하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린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 오늘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런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자마자 실수끝은 속내를 포물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열기가 차넘칠 때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사측하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린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 오늘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런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판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자마자 실수끝은 속내를 포물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삼천리강토에 통일의 열기가 차넘칠 때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사측하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린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 오늘도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그런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시대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라

남조선호전광들이 분별없이 헤엄치면서 북남관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군부장관들의 도발적언행이 계속되는 속에 괴뢰특공 특수전정부가 《해무기와 장거리미사일시설》을 비롯한 《북의 전략핵실험표적타격》을 위한 특수부대전성능을 추진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진것이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앞에 나타난 특수전사령관이라는자는 그에 대해 인정하면서 《북지역에서의 관련작전》이니 뭐니 하고 호전적광기를 부리었다. 이날 이자는 《특수부대침투작전의 신속성보장》을 위해 새로운 항공공대를 내오는데 대해서도 수작질했다.

우리의 전략적대상을 노린 남조선호전광들의 특수부대전성능을 동족에 대한 변방없는 적대의 시과 침략기도의 뚜렷한 발로서 대화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국면은 지난 8월에 이룩된 북남합의에도 불구하고 안심할만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있다. 북과 남이 흥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정세발전

남조선호전광들이 분별없이 헤엄치면서 북남관계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군부장관들의 도발적언행이 계속되는 속에 괴뢰특공 특수전정부가 《해무기와 장거리미사일시설》을 비롯한 《북의 전략핵실험표적타격》을 위한 특수부대전성능을 추진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진것이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앞에 나타난 특수전사령관이라는자는 그에 대해 인정하면서 《북지역에서의 관련작전》이니 뭐니 하고 호전적광기를 부리었다. 이날 이자는 《특수부대침투작전의 신속성보장》을 위해 새로운 항공공대를 내오는데 대해서도 수작질했다.

우리의 전략적대상을 노린 남조선호전광들의 특수부대전성능을 동족에 대한 변방없는 적대의 시과 침략기도의 뚜렷한 발로서 대화와 협력,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국면은 지난 8월에 이룩된 북남합의에도 불구하고 안심할만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있다. 북과 남이 흥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실현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정세발전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2015년 이후 개발의정》 채택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수영의무장이 27일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창립 70돐을 맞은 시기에 평범한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와 평화를 반영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이 채택된것은 유엔역사상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에 채택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은 세계적법위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기술어른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에 채택된 제 천년개발목표는 사회경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조를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류를 빈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계를 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리수영의무장이 27일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창립 70돐을 맞은 시기에 평범한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와 평화를 반영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이 채택된것은 유엔역사상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에 채택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은 세계적법위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기술어른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에 채택된 제 천년개발목표는 사회경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조를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류를 빈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계를 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리수영의무장이 27일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을 위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창립 70돐을 맞은 시기에 평범한 유엔성원국들의 의사와 평화를 반영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이 채택된것은 유엔역사상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에 채택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정》은 세계적법위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기술어른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에 채택된 제 천년개발목표는 사회경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협조를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인류를 빈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이로부터 우리는 세계를 개

운명적인 시각에 도발적언행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온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장면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 《기조연설》이라는 제 《북핵은 핵무기설》에 상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의 추가도발은 남북대화방문기를 해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대화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 《인권개선 촉구》라느니 뭐라느니 우리들의 존엄과 체체를 힐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장면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 《기조연설》이라는 제 《북핵은 핵무기설》에 상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의 추가도발은 남북대화방문기를 해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대화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 《인권개선 촉구》라느니 뭐라느니 우리들의 존엄과 체체를 힐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장면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 《기조연설》이라는 제 《북핵은 핵무기설》에 상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의 추가도발은 남북대화방문기를 해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대화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 《인권개선 촉구》라느니 뭐라느니 우리들의 존엄과 체체를 힐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장면을 늘어놓아 내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유엔총회 제 70차회의 《기조연설》이라는 제 《북핵은 핵무기설》에 상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느니, 《북의 추가도발은 남북대화방문기를 해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대화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느니, 《북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느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 《인권개선 촉구》라느니 뭐라느니 우리들의 존엄과 체체를 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배격

이관고정적자 아흐마드 카리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안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아직도 저물과 이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것이 허

이스라엘의 발광적인 미사일방위체계적행동

이스라엘이 미사일방위체계 전개행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20일 이스라엘대중 보도수단들은 당국이 남부지역의 2개 도시에 《아이언 돔》미사일방위체계를 전개하였다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배격

이관고정적자 아흐마드 카리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안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아직도 저물과 이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것이 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배격

이관고정적자 아흐마드 카리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안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아직도 저물과 이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것이 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배격

이관고정적자 아흐마드 카리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안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아직도 저물과 이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것이 허

남조선대학생들 대학교수의 친일말연을 규탄

남조선 《연방뉴스》에 의하면 22일 남조선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수 정안기의 말연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15일 정안기가 강의 시간에 성노예 피해자들은 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배격

이관고정적자 아흐마드 카리미가 24일 워싱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안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핵합의가 이룩된 후 미국이 아직도 저물과 이란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는것이 허

